

# “광한루서 사또 부임행차 보고 추어탕 한그릇 ‘뚝딱’”

### 남원시, 먹거리·볼거리 가득한 ‘감성관광상품’ 공개 한옥·공연·체험·문학·밥상 등 9개 부문 홈페이지 소개

“남원에 오시면 광한루에서 신관사또 부임 행차를 보고 추어탕 한그릇 꼭 드세요.”

남원시는 으름 가는 먹거리와 볼거리, 잠자리 등을 뽑아 관광객들에게 공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남원시가 선정한 ‘감성관광상품’ 콘텐츠는 한옥의 운치, 감동의 여운(공연·체험), 문학의 향기, 걷는 감성길, 토속의 맛, 사진찍기 숨은 보석 10선, 즐거운 레저 스포츠, 영화·드라마 촬영지, 명소의 포토존 등 총 9개 부문이다.

한옥 부문에서는 남원의 대표 명소인 광한루와 한옥숙박시설인 남원예촌, 운영채고택, 몽심재 등 한옥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는 14곳을 소개했다.

공연·체험 부문은 시민들이 광한루에서 주도적으로 펼치는 신관사또 부임행차와 전통혼례식 등 33개를 선정·공개했고, 문학 부문에서는 혼불

문학관, 서도역, 고전소설문학관 등 9곳을 꼽았다.

감성길 부문에서는 남원시만 보유하고 있는 지리산둘레길, 구룡폭포순환길, 주천·밤재 등 8개 코스를 선별했다.

밥상 부문은 추어탕, 장어정식, 흙돼지, 산채비빔밥 등 남원 대표 메뉴 7개를 선정했고, 사진찍기 좋은 숨은 보석으로 몽심재, 선사시대암각화, 마애여래좌상, 덕치리 초가 등 10곳을 추천했다.

레저·스포츠 부문으로 경비행기체험, 암벽등반, 산악자전거 등 8개를 꼽았으며, 영화·드라마 촬영지로는 미스터 션샤인과 동주 촬영지로 명성을 떨친 서도역, 춘향전을 촬영한 춘향테마파크 서어나무숲 등을, 포토존은 광한루원, 예루원, 승월폭포, 허브밸리 등 7곳을 들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감성적



남원시는 9개 부문으로 구성된 ‘감성관광상품’을 개발해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남원시 제공>

인 관광코스를 자신만 알고 싶은 관광지 등에 대해 문의가 잦았다”면서 “필요 여행정보를 감성투어 콘

텐츠로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정읍 태인면에 축구장 조성 57억원 들여 10월말 완공

정읍시 태인면에 축구장이 조성된다. 정읍시는 축구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정읍시는 축구장이 들어설 태인면 태창리 일대 토지의 경계측량을 끝냈고 10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57억원이 투자될 축구장에는 경기장 2면(국제규격 1면·유소년용 1면)과 사무실 1개 동, 화장실, 전광판, 야간조명 시설 등이 들어선다.

정읍시는 평소 축구장을 개방해 생활체육, 유소년 축구교실, 주민 단합대회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대피 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순창소방서 개청 “골든타임 확보 주민 안전·재산 보호”

순창군에 소방서가 신설돼 화재나 위급 때 골든타임 확보와 질 높은 소방안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지난 31일 순창군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9일 순창읍에서 순창소방서 개청식을 열었다. <사진> 순창소방서는 5473㎡ 부지에 지상 3층(연면적 2595㎡) 규모에 소방인력 129명이 근무한다.

조직은 2과, 1단, 1안전센터, 1구조대, 4지역대이며 소방차량 22대를 보유한다.

순창에는 전담 소방서가 없어 비상시 인근 지역 소방인력이 출동해 왔다.

전북에는 12개 소방서가 운영 중이며 진안, 무주, 임실군에도 소방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정읍시, 내년부터 동학혁명기념일에 쉼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인 매년 5월 11일 정읍시가 공식적인 휴무를 실시한다.

지난 31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시의회는 최근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동학농민혁명 기

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을 정읍시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동학농민혁명의 역

5월 11일 휴무 조례안 제정

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정읍시는 매년 5월 11일을 ‘정읍시 지방공휴

일’로 정하고 시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정읍시의회 직원들이 휴무한다.

이번 동학기념일 공휴일 제정은 정읍시 최초의 지방공휴일로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계승 및 선양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문수사 대응전’ 보물 승격 추진

고창군은 ‘문수사 대응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9일 고인돌박물관에서 ‘고창 문수사 대응전의 보존 및 활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 문수사 대응전의 학술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였다.

문수사 대응전은 조성 연대가 확실하지 않으나 1876년(고종 13)에 고창형감 김성로의 시주로 목암대사가 다시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다포계 양식의 맞배지붕으로 지어진 점이나 쇠사(전각의 기둥 뒤에 덧붙이는, 소의 혀와 같이 생긴 장식)의 조각 수법이 특이해 역사학계와 건축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학술대회에서는 한문종 전북대 교수가 ‘문수사 대응전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항미 광주여대 교수가 ‘문수사 대응전의 건축적 특성’, 김석희 문화재청 사무관이 ‘문수사(대응전)의 보존과 활용’을 발표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 호암마을 도자기



고창 신월마을 동충하초

## 고창 호암·신월마을, 전북도 마을기업 선정

각각 1000만원 육성자금 지원

고창군은 전북도가 실시한 마을기업 공모에서 고창읍 호암마을과 무장면 신월마을이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공모 선정으로 이들 마을에는 각각 1000만원의 예비마을기업 육성자금이 주어진다.

호암마을은 도자기 체험과 판매, 명상을 통한 힐링치유, 생태치유 밥상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 신월마을은 식용곤충 재배, 동충하초 제품을

개발·판매해 소득 증대에 나서고 있다. 고창군은 이달 중으로 두 예비 마을기업군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예비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사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매년 광역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시대가 변화에 따라 약해져 가는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둔 마을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익산시, 전북 최초 1인당 10만원씩

익산시는 지난 4월 전북 최초로 결핵이민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데 이어 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익산시는 소요 예산 4000만원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도 시의회에 발의돼 심의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영주권자 400여명이다. 이들에게는 익산시민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